

## ‘Q’에서 정의와 평화 복돋우기

Carolyn D. Townes, OFS (국가형제회 정의 평화 위원회 애니메이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2 티모테오 1, 7



저는 이전에 Quinquennial Congress 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서 대회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다만 이전에 개최되었던 대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대회가 개최되는 그 도시로부터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6 년 Q에서 강연을 요청 받았을 때 흔쾌하게 승낙하였고 프란치스코회 형제자매 회원들과 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하였습니다. Q 준비 위원회를 만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프란치스코회 형제, 자매회원들에게 생기를 복돋아주고 다시 열정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생기를 복돋워 주고, 조언하고, 다시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3 월, 위에 적힌 2 티모 1, 7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Q의 셋째 날에 가서야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Dan Horan 수사님의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관해 말씀이 청중의 마음에 어떤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형제회 나눔이 끝날 때 쯤에 제 마음에 은밀히 숨기고 있던 두려움이 실은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고 대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 확신합니다. 독일 시인 Rainer Maria Rilk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서둘러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저 질문을 품고 살아라.”

풍랑이 일어 파도가 배를 뒤엎어 버리게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복음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제자들은 풍랑에 배가 뒤집혀 죽을까 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두렵고 초조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 죽음의 목전에서 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마태오 복음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신 후,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려스럽고 불미스러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주의와 주장들이 폭력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를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잠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런 방어기제입니다. 위협을 받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이 지나가면 두려움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중 앞에서 말할 때 불안해하는 것처럼 생명에 전혀 위협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본연의 존재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느님의 힘은 세상이 주는 힘과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또한 완전한 사랑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게 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초조해하며 걱정하게 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에 머무십시오. 완전한 사랑에 머무십시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과 평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과 주님과 관계를 관조하십시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깊이가 있으며 지속적입니까? 아니면 깊이도 없고 미지근합니까? 사랑이신 하느님과의 관계가 결국 두려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지금 이 순간 하느님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 머물게 될까?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자매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해드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 안에 항상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진: 국가형제회의 정의 평화 환경위원회 회원들과 동료들